

# 광주시·전남도 항공사 수십만 마일리지 날릴 판

### 57만 마일리지 내년 1월 소멸... 기초단체 포함엔 훨씬 많아 공무상 출장에도 개인별 적립 활용 어려워 대책 시급

내년 1월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성수기 마일리지 좌석을 더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정작 3주 뒤면 사라질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번죽만 올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개인별로 적립되는 탓에 활용하기 쉽지 않아 이대로라면 소멸될 마일리지 수가 십만 마일에 달한다.

를 쓰기 어려워 사실상 써보지도 못한 채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도 광주시가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 7만2000마일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소멸될 마일리지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마일리지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예산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마일리지를 통합,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중앙정부의 경우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기관 단위로 적립할 수 있어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으로 활용하기 쉬운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탓에 마일리지 활용이 어렵다는 게 자치단체 설명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 평균 1년 1회 미만인데다, 개인별 적립된 마일리지 대부분 1만마일 미만이라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활용 대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하는 한편, 카드 포인트처럼 쓸 수 있게 사용처도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운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 액수는 지난해말 기준 2조 6000억원(대한항공 2조 982억, 아시아나 5500억원)으로, 소멸 대상 마일리지 전체의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마일리지 가치도 불만=항공사들이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

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의 경우 은행 4개, 국내의 호텔 21개 외에 백화점, 주유업체, 관광업체, 카드회사 등과 제휴를 맺었고 아시아나도 은행 3개, 13개 카드업체, 국내의 호텔 19곳, 7개 렌터카 업체, 온라인 쇼핑몰 22개사 등 80곳과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권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진처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이외의 상품을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도 전체의 5~10%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주권시민모임은 이러한 점을 들어 ▶양도 가능하게 하고 대상도 넓혀야 한다 ▶마일리지 좌석 및 소진처 확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 기한 일정 기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에 항공사 대표를 고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3.79 (-21.97) ↓ 금리(국고채 3년) 1.80 (-0.03)
- ↓ 코스닥 670.39 (-14.94) ↑ 환율(USD) 1126.50 (+6.70)

## 광주은행, 반세기 역사 담은 社史 펴내

### '바람에 아니될새...'

5·18, 외환위기 등 실려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행장 송중욱)이 반세기 역사를 담은 사사(社史) '바람에 아니될새: 광주은행이 걸어온 50년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에는 지난 1968년 11월 20일 창립 당시 금고문을 열던 장면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 전산화 과정, 외환위기,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거쳐 JB금융그룹과 함께 비상하고 있는 현재까지 골골진 역사가 담겼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성원과 지지도 녹여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계속된 적자로 어려움에 빠지자 지역민들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주식을 사주어 지지를 보냈던 이야기('100억 유상증자 성공')나 다른 은행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냈던 대목('지역사회는 한목소리')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바람에 아니될새'를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광주은행이나 금융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이야기



의 흐름을 따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찬했다. '바람에 아니될새'는 오는 7일부터 오는 2020년까지 인터넷과 시중 주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지원 덕분에 50년 자랑스러운 역사를 쌓을 수 있었다"며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향하는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창립 당시 자본금 1억5000만원, 직원 57명으로 출발해 총 자산 27조원, 임직원 1600여명이 함께 하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414억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6.31%를 기록하는 등 조우량은행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문 열어

### 광주 등 4곳...500명 교육 전문인력 5년간 1만명 양성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이날 광주사업장을 비롯, 서울, 대전, 구미 등 4곳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입학식을 열고 1기 교육생 500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교육 일정에 돌입했다.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180조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향후 5년간 1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2학기로 나눠 자기 주도 학습을 위주로 12개월간 진행된다.

1학기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 등 소프트웨어 기초 학습을 위한 몰입형

코딩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고, 2학기는 실전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이론 강의 없이 100%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된다.

학습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깃허브'와 같은 개발 툴과 '코드 리뷰', '페어 프로그래밍'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삼성측은 각 학기가 끝난 뒤 한 달간은 개인별 수준과 적성에 맞는 진로 코칭과 취업 특강, 채용 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잡페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교육 기간에 월 100만원의 교육 지원비도 지급한다. 2기 교육생 500명은 내년 5월 모집에 들어가 6월 선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인도네시아 해외 판로 개척

### 광산업진흥회, 수출상담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 광융합산업 비즈니스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난 4~6일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나눔테크, 대신전자 등 국내 광융합기업 16개사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20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기술 및 제품 설명회를 열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1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광산업진흥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광융합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미국, 캐나다 등에 12개 현지 마케팅센터를 구축하고 현지 수출상담회, 유망바이어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 유망전시회 공동관 등을 운영하며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진흥회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 등 유망진출국에 현지사무소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온성 뛰어난 히팅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6층 'CK진' 매장에서 직원이 히팅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히팅진은 청바지 안쪽을 부드러운 기모로 제작해 보온성이 뛰어나다. 광주신세계 CK진 매장에서는 오는 31일까지 히팅진을 비롯한 겨울의류를 최대 50% 할인한다.

## 지날달 주스·국수 가격 오르고 콜라·고추장 내림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11월 판매가격을 조

사한 결과, 전달보다 16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9개 품목은 내렸다고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오렌지 주스

(6.8%)와 국수(4.2%)·카레(2.8%)·참치캔(2.5%)·된장(2.3%) 등이었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콜라(-1.3%)·고추장(-1.3%)·소프(-1.2%) 등이었다. 고추장은 지난 8월부터 지속해서 값이 내리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